



‘지역ESCO 활성화’에 일조 할 것
축적된 기술과 선진 금융기법 공유 돼야

오혜은 기자/hi9187@hanmail.net

본지는 ESCO협회 임원에게 '현재 ESCO 전반에 대한 생각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ESCO협회의 신임 이사로 선임된 포철기연(주) 배명호 상무는 지역 ESCO 사업자들의 취약한 경쟁력 등을 얘기하며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호간 축적된 기술과 선진 금융기법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배명호 상무를 만나봤다.

● ESCO협회의 새 임원으로써 각오

세계적인 유가 급등과 92년 채택된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근원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 절약시설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에너지 절감문제가 더욱 절실한 시점에서 ESCO협회 임원의 일원으로 중책을 실감합니다.

이에 국가 에너지 절감사업과 ESCO협회 사업취지에 맞추어 회원사간 협력과 화합동참으로 한국 에너지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ESCO사업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협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해 회원사간 사업 정보와 노하우를 ESCO사업자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 ESCO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무엇이 최우선으로 되어 한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ESCO는 국가 에너지합리화와 신고유가, 기후변화협약 시대를 맞아 국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에서도 ESCO전문기업을 기술력과 금융기법을 겸비한 종합에너지관리 컨설팅업체로 육성해 국가경제의 '신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ESCO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은행의 융자를 받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SCO 지원자금은 투자개념의 정부 예산이 아니라 전량 회수되는 재정으로 지원자금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ESCO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ESCO사업이 연중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 협회가 회원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대부분 ESCO사업 대상 업체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지역업체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부대경비가 증으로 경쟁력이 취약해 사업 참여기회가 적은편입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지역 ESCO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ESCO CEO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투자 사업에는 그 지역에 상주해 있는 사업자들에게 입찰시 가점제를 부여하는 '지역업체 입찰 가점제'가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견입니다.

아울러 지역 ESCO사업의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포철기연은 지역에 상주해 있는 포스코의 ESCO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협회 회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고유가, 기후변화에 의한 탄소배출권 판매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ESCO사업의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회원사간의 과당 경쟁과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상호 축적된 기술과 선진 금융기법을 공유해 ESCO사업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㉔